

개 회 사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직할교구 종회의원 스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구종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무원장 취임 이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천명하고 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처방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1월 26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 결사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결사이며, 네 번째는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간 평화와 남과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사는
외부를 향한 요구와 주장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닿아야 할 곳은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자비’로서 ‘보살의 정신’을 구현하는
대승불교입니다.**

**당장은 고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불교가 바로 서고,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구총회 의원스님들
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도심포교에도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는 도심포교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수도권의 경우 일부 대형사찰과 선원에서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직할교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직할교구 스님들의 도심포교 원력이 한국 불교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직할교구 총회의원 스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 역시 총무원장과
직할교구장으로서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5년 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